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기대

노사, 4년만에 무쟁의 합의로 주목 ... 채권단 신뢰 회복에 기여

금호타이어 노사가 2009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이후 처음으로 조정신청 등 쟁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체협상 잠정안에 합의해 워크아웃 조기 졸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6월26일 제12차 교섭을 진행해 오후 11시께 2013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2009년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노사협상 과정에서 3년째 계속됐던 파업 등 노사 분규를 거치지 않고 4년 만에 <분쟁 없는> 잠정협상안을 이루어낸 것이다.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고 월평균 급여 228% 수준의 격려금 지급과 상호노력과 실천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임금 인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연례적으로 치렀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금호타이어의 최대과제인 워크아웃 조기 졸업이 노조원들로서도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면 임금 반납분을 원상대로 돌려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법원의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결정에 따라 불법쟁의를 끌고 가기 부담스러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 관계자는 “투쟁 중심이던 2012년까지와는 달리 2013년에는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섭을 진행했다”며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6월17-18일 조합원 설명회에 이어 7월2-3일 찬반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합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 신청을 거치지 않은 무쟁의 합의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으면 채권단 등의 신뢰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7>